

전염성 기관지염 (Infectious Bronchitis)

원 송 대
<한국 카길 기술지도부>

전염성 기관지염은 닭의 급성전염성 호흡기 질환으로서 호흡기 계통의 염증으로 콧소리, 기침, 팔팔소리(기관지소리)를 나타내는 질병이다.

이 병원체는 바이러스로 전파력이 24~48 시간내 한 계군이 모두 이병(離病)될 수 있는 병이고 또한 잠복기간이 18~36시간 밖에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.

또한 주 전염경로가 비말감염 혹은 공기 전염이므로 무섭다는 것이다. 물론 기구, 사람의 옷과 신, 사료에 묻어 전파되기도 한다.

이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면 좋은 면역이 형성되고 보균제도 되지 않는다. 다시 말해서 난계대성 전염병이 아닌 것이 다행이다. 이 병의 이병율(離病率)은 100%이고 병아리의 폐사율은 60%에 이른다.

외 부 증 상

이 병에 걸리면 기침, 목끓는 소리가 갑자기 생기면서 약간의 콧물을 보인다. 그러나 안면은 붓지 않는다.

호흡기 증상은 2~3주간 계속하나 신경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.

2개월령이 넘는 닭은 이 병에 걸려도 약간의 호흡기 증상을 보일 뿐이고 계사는 거의 무시할 정도이다.

그러나 사료섭취량과 산란율이 갑자기 떨어지고 알이 연란각, 기형란 및 소란이 쏟아져 나온다.

해부적 변화

다른 호흡기 증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관내에 카탈성 염증으로 누런 콧물 같은 것이 묻어 있고 기관지는 노란 치즈같은 물질이 차 있다.

기낭은 염증으로 혼탁되어 있고 폐는 폐염으로 염증이 보인다. 산란계는 복강 내에 난황이 떨어져 파열되어 노랗게 물들어 있다.

감 별 진 단

발병 초기에는 뉴캐슬병, C.R.D와 전염성 후두기관염과 임상적으로 구별하기는 어렵다. 실험실에서 바이러스를 분리 고정하던지 증화반응을 하므로서 진단할 뿐이다.

병 의 예 후

폐사율은 환경조건을 개선 해 주면 그 정도를 줄일 수 있다. 그러나 어린 병아리에서 한번 발병하면 수란관이 영구적 파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산란계의 산란지수가 적게 된다. 2개월 정도 넘은 닭은 잘 회복이 된다. 그러나 산란계는 산란율이 떨어지면 좀처럼 산란율이 잘 회복되지 않는다.

예 방 대 책

발병과 전파시간이 너무 짧아서 치료할 여유도 없으며 치료대책도 없다. 발병시 병아리 계사의 실내온도를 높여주면서 비타민제와 항생제를 강화하여 투여하므로써 제 2차 질병을 예방한다.

외국에서는 접종약이 개발되어 뉴캐슬과 동시에 접종하도록 되어 있다. C.R.D와 혼합 감염시에는 C.R.D 발병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치료도 곤란해진다.

여러분의 양계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

양계 경영일지가 전혀 새롭고 충실한 내용으로 곧 발간됩니다. 많이 기대 하시기 바랍니다.

한 국 가 금 협 회

서울 중구 초동 18-11 26-0321 · 4692